90년대 출판, 어디로 갈 것인가

「90년대 출판문화 발전방향」 심포지움서 진로 모색

80년대를 마감하고 90년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정신문화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출판문화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89 출판문화 발전 심포지움」이 지난 12월 8~9일 양일간에 걸쳐 충남 도고호텔에서 열렸다. 문화공보부가 주최하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한 이번 「90년대 출판문화 발전방향」 심포지움에는 학계 · 언론계 · 출판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 90년대 출판문화에 대한 전망과 제안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90년대 출판문화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움 전경(12월 8·9일 도고호텔).

"출판문화의 도덕성 · 책임성 확보해야"

먼저 徐正宇교수(연세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90년대는 '문화의 연대'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90년대 출판문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서교수는 출판이 고도의 지적 활동이며 창조적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정적 규제를 혐오한다고 전제하면서 출판문화운동의 전개를 제안했다. 이 운동은 출판문화에 대한 국민의 평균적 이해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출판홍보운동이나 독서운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출판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상태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평가하면서, 출판현대화를 위한 정책적 ·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서교수는 이와 같은 외부조건의 개선점과 더불어 출판계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자기혁신도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란 출판관리의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출판관리의 도덕적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①출판학의 도입 ②교육 · 훈련의 체계화 ③산학협동체제의 구축 ④윤리강령 및 윤리기구의 강화 ⑤자체 심의기능의 정착 ⑥본격적인 서평문화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許昌成씨(평화출판사 대표)는 「출판물의 제작환경 개선과 출판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이란 발제를 통해 출판물의 제작환경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했다. 허씨는 이 발표에서 제작환경 개선방안의 첫단계로 종이 · 인쇄 · 잉크 · 제본 · 출판업계와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두번째 단계는 제과정의 품질관리와 표준화 작업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씨는 각 업계에서 실무위주의 전문인력양성과 근무개선 등을 위한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출판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으로는 대자본에 의한 유통기구 설립이라는 편의주의적 발상을 비판하면서 현존의 지역도매기구를 건전육성, 광역화형 지역도매 기구를 구축해가자고 주장했다.

金大煥교수(이화여대)는 「윤리적 측면에서 본 출판정책의 방향」에서 출판문화의 역기능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건전한 출판문화 달성을 위해 ▲정부를 포함한 출판문화관련자들이 舊殼을 벗고 한단계 높은 문화창출을 위해 윤리적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자율에 상응하는 출판문화의 윤리성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우리의 출판문화가 量으로부터 質로의 전환을 꾀해야 하며, 학교교육의 내용과 그 평가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惡書의 출간을 막기 위한 여론형성과 고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독자층의 다각적인 개발 긴요"

이튿날 계속된 심포지움에서 車京守교수(서울대)는 「독자개발측면에서 본 출판」에서 출판계가 능동적으로 독자층을 개발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독자의 취향에 순응하고 영합해 왔다며, 상업적 · 관능적 · 출세주의적 경향의 책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출판문화는 이제 '팔려야 책을 만든다'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를 탈피, 과감하게 독자층을 개발하고 책을 읽게 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차교수는 전문적인 내용을 일반대중들이 알아보기 쉽게 쓰는 '아카데믹 에세이' 스타일의 도서개발 등을 통한 내용의 다양화와 20대 전후에 집중되어 있는 독자층을 연령 · 성별 · 직업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독자층을 다각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 · 제작측면에서는 대중에 대한 TV문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도서의 시각적 효과를 늘려나가고, 참신한 출판기획과 성실한 번역을 통해 독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서점의 문화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독서가 생활화되는 환경조성을 위해 시험본위의 교육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白承吉씨(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부장)는 「국제교류측면에서 본 출판」에서 선진출판국의 경우, 국제저작권법의 강화를 통해 도서무역을 신장하고 있다며 국제도서전시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몇년간 개최하지 못한 국내도서전을 활성화시켜 국제도서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완벽한 「대한민국 출판물 총목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종합토론에서 이중한씨(서울신문 논설위원)는 "출판은 읽을 것을 찾고, 교육은 읽기를 훈련시키고, 도서관은 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적 구조가 함께 확립되어야 한다"며, 제기된 문제의 한 측면만을 보지 말고 "전체를 동시에 조망하는 거시적 시각을 통해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군에 책 4천권 기증

출판산업단지 추진위, 一山주민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웅)는 지난 11일, 출판타운이 들어설 경기도 고양군 일산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이동도서실용으로 3천여권의 책을 백성운 고양군수에게 전달했다.

백성운 고양군수(중앙 오른쪽)에게 책을 전달하는 이기웅 위원장과 실행위원들.

이날 오전11시 고양군청에서 가진 도서전달식에는 추진위원회측에서 이기웅 위원장(열화당 대표)을 비롯한 윤형두(범우사) · 전병석(문예출판사) · 허창성(평화출판사) · 이경훈(보성사) · 윤청광(동국출판사) · 박충일(하산출판사) · 박기봉(비봉출판사) · 김영준(경세원) · 최선호(청한문화사)씨 등 실행위원들이, 고양군측에서는 백군수를 비롯한 10여명의 군청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군수는 "기증해 주신 분들의 뜻을 살려 값지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판인 일행은 이날 오후 고양경찰서도 방문, 일선경찰관들의 교양함양에 써달라고 1천권의 책을 박근행서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증한 책들은 출판단지 건설에 참여한 출판사들의 협조로 모아진 것이다.